

# 재미 한인 여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난 학령기 아동양육에 관한 내용 분석\*

## Content Analysis of Korean-American Women's School-aged Child Rearing on Internet Community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김영주\*\*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lsan Univ.  
Professor : Kim, Young-Joo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deas about Korean-American mother's school-age child rearing that are represented on internet community.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content analysis and the data consisted of articles about Korean-American mother's school-age child rearing on a internet community bulletin board during 1 year in 2008.

It was found that these articles dealt with problems of practice in interfacing between home and social institutions(Especially school), teaching, counseling, nurturing and disciplining. For example, 831 articles put great emphasis on interfacing between home and social institutions, 339 on teaching, 268 on counseling with children. From these results, we might conclude that many Korean-American mothers gave their children school related care.

---

▲주요어(Key Words) : 학령기 자녀양육(school aged child rearing), 교육(education), 상담(counseling), 사회제도 연계(interfacing between home and social institutions).

### I. 문제의 제기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는 100년 전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이선미, 2004). 2008년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한인이 202만 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8). 현재 재미 한인 사회가 경험하는 중요한 변화의 핵심은 세대교체이다(윤인진·임창규, 2008). 이는 1988년 이후로 미국으로의 이민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에서 출생하여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간 이민 1.5세대와 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2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그 수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1.5세대와 2세대와 같은 차세대 재미 한인들은 부모세대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직업지위와 소득수준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윤인진·임창규, 2008) 미국의 주류사회에 빠르게 동화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차세대의 미국 주류사회문화로의 동화는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모국에 대한 유대감과 애착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윤인진, 2004:18).

젊은 세대가 주류 사회로 동화하는 것과 이민 1세대가 이중 문화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문화적 연속성 또는 민족의 결속을

---

\* 이 논문은 2007년도 울산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주 저 자 : 김영주 (E-mail : grace609@ulsan.ac.kr)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선미, 2004)는 필연적이다. 선행 연구(류지영, 2005; Lee, 1996)들을 고찰해 볼 때, 한국 이민 1세대들은 비록 미국 문화와 사회에 어느 정도 동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의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지만, 2세대들은 이러한 부모들의 이중적인 기대에 부적응과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아시아계 미국 청소년들과 한국계 학생들의 비교연구에서 Lee(1996)는 한국 학생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미국 주류사회의 행동 규범을 익히기를 원하는 한편, 한국 문화 또한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런데 재미 한인 영재 청소년에 대한 연구(류지영, 2005)에서 한인 영재 여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전통적인 여인의 태도를 지니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아들에 대한 기대와 마찬가지로 학문적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불만으로 표시하였다.

아무리 재미한인이 문화적으로 미국에 동화되어도 인종의 장벽 때문에 사회구조적 동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많은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아시아인들이 아무리 주류 사회에 동화되더라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유리 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sia, 1988). Kim과 Lewis(1994)의 연구에서도 아시아계의 경우 공직으로의 진출은 백인과 비슷하지만 고위직으로는 진출하지 못하는 유리천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내 소수민족이 거주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Bonacich와 Modell(1980)은 현지사회에서의 차별에 대항하는 동족간의 연대와 사회적 지원망을 중요한 자원으로 보았다. 소수 민족의 적응에 관한 몇몇 연구들(Fragier, 1957; Light, 1972; Sowell, 1975)은 민족 문화와 전통이 거주국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하는데 주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족적 정체감의 확립이나 문화적 연속성, 정체성 유지는 재미 한인들에게 중요한 적응기제 역할을 하게 될 것(최현, 2003)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양육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의 적절한 물리적 보살핌과 애정 어린 협력을 제공하는 노력을 의미한다(유안진, 1992:92). 아동양육은 아동발달, 부모됨, 부모자녀 관계 등에 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신념에 근거하여 자신의 양육 행위를 결정하기(신양재 · 김영주, 1992)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때맞추어 성취해야 할 발달내용이 무엇인지, 아동이 보이는 행동을 평가 · 진단하는 기초로서 이 신념이 작용한다(Goodnow, 1982).

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신념은 각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각 시대와 각 사회는 제 나름의 문화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이 특수성이 그 시대,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나 욕구 및 성취를 결정하며 가치관, 세계관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사회문화성원이 될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유안진, 1992:93). McGillicuddy-De Lisi와 Subramanian(1994)는 미국과 탄자니아 어머니의 부모 신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의 어머니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탄자니아 어머니 간에 양육신념에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양육신념의 차이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아동 양육의 실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이전에 속했던 문화권의 양육 신념과 새로 이주한 문화권의 양육 신념 및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과정(적응)을 거치면서 부모들은 기존의 가치 중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부모의 양육 신념은 부모 자신의 신념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적응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되며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자녀 양육은 젊은 세대가 주류 사회로 동화하는 것과 이민 1세대가 이중 문화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문화적 연속성 또는 민족의 결속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선미, 2004)를 발생시키는 진화적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이민 1세인 부모와 1.5세 및 2세인 자녀간의 갈등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문화적 연속성과 정체성을 전달하는 것도 자녀 양육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Siegel(1985)은 부모의 신념이 부모의 행동이라는 개념적 틀을 설정하고, 이 관계 안에서 부모의 신념과 행동을 연관 짓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양육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신념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부모의 양육 신념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양육행동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재미 한인 여성의 실제적인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는 재미 한인의 문화적 연속성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고, 이들이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재미한인의 공통적인 이민 동기로는 경제적 기회와 자녀 교육을 꼽을 수 있다(신혜섭, 1995). 이는 자녀의 학업 성취를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한국의 가족 문화(강희경, 2003)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본격화된다. 재미한인 1세대의 경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자녀가 미국의 제도교육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자녀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길 원한다. 김경근(2005)의 연구에서 재미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어와 현지어에 모두 능통하길 바라며, 자녀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기를 기대하는 이중적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미 한인의 자녀 양육 중에서도 학령기 아동 양육은 위에 기술한 재미한인의 자녀 양육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가상공간에 관심있는 주제를 매개로 형성된 공간(Fernback & Tompson, 1995)이다. Carroll 등(2001)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네트워크를 매개로한 의사소통과 협동을 통하여 사용자들의 욕구를 달성하고 강화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백종화와 박성연(2002)은 어머니들이 인터넷의 사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느낀다고 하였다. 이제 인터넷은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사회적 지지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재미 한인 여성에게도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근접성이 용이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간접적인 해결방법이긴 하지만 같은 민족 집단과의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 환경이 될 것이라고 추론된다. 또한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해 자신의 자녀 양육에서 밝히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난 재미 한인 여성들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게시물을 분석하여 학령기 아동 양육의 실체는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재미 한인 여성에게 공유되는 아동양육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재미 한인 여성과 아동, 가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고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난 재미한인여성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주제 유목별 내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난 재미한인여성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주제 유목의 하위 영역별 내용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재미한인여성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에 있어서 객관성과 체계성의 확보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김영주, 2004; 차배근, 1990). 본 연구는 내용 분석 연구의 객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석 대상 선정, 분석 유목 선정, 분석 단위 선정, 집계 체계 선정, 자료 처리 등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의 1년 동안 재미 한인 여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중 M 사이트의 아동 양육에 관한 여러 게시판 중에서 '킨더·엘리멘트리 스쿨'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자. 전체 게시물 중에서 광고 및 채용공고 등을 제외한 게시물 총 1745건이 최종적인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 M사이트는 재미 한인 여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서 최대 사이트이다. 이 커뮤니티의 회원 자격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다. 이들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있고, 유학이나 취업의 이유로 단기간 미국에 머무르는 여성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재미'라 함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이나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것을 의미한다.

이 사이트에 motherhood라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게시판이 있다. Motherhood 게시판은 임신·출산, 아기 키우기, 데이케어·프리스쿨, 킨더·엘리멘트리, 미들·하이, 과외활동 등의 하위 게시판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은 킨더·엘리멘트리 게시판이다. 이는 학령기는 만 5세 이후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시기로 킨더와 엘리멘트리 게시판의 대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 2. 분석 유목 선정

본 연구에서는 Berelson(1952)이 제시한 분석 유목 중에서 주제 분석을 적용하였다. 먼저 주제 분석 유목을 정하기 위하여 한국 어머니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김영주(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보육유목, 교육유목, 훈육 유목, 상담유목, 사회연계유목의 5개 유목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유목을 분류한 결과 5개의 유목에 해당되지 않는 게시물들이 있어 이를 기타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유목은 총 6개이다.

#### 1) 보육유목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인 기본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으로는 물리적 필요 충족, 정서적 보호, 건강 위생 관리 등이 있다.

#### 2) 교육유목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제반 측면 즉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으로는 신체적 영역, 정서·사회적 영역, 인지적 영역 등이 있다.

#### 3) 훈육 유목

아동에게 개인, 가족,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칙, 규범,

가치 등을 내면화시켜 정신적·행동적 습관을 형성시키는 의도적인 부모의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사회 규범의 내면화, 훈육 방법에 관한 내용을 훈육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 4) 상담유목

상담 유목은 자녀의 발달 과정 중 결정적 시기에 야기되는 문제나 갈등에 관해 조언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는 사춘기 변화 적응, 이성 교제, 진로, 부모자녀관계 상담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 5) 사회연계유목

사회연계유목은 아동을 일반 사회 제도나 시설에 연결시키는 교양적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으로는 학교 연계, 방과 후 교육 연계, 대중매체 연계 등이 있다.

#### 6) 기타 유목

기타 유목은 위의 다섯 유목에 속하지 않는 내용으로 주로 비자나 신분문제, 한국 방문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재미 한인이 갖는 특수한 문제이다.

### 3. 분석 단위 선정

본 연구에서의 분석 단위는 아이템(item)이다. 아이템이란 하나의 기사 전체라든지 한편의 영화, 서적, 방송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김영주, 2004; 차배근, 1990). 본 연구에서는 사이트에 올라온 하나의 게시물을 하나의 아이템을 보았고, 따라서 하나의 게시물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선정하였다.

### 4. 집계 체계

내용분석을 하는 경우, 해당하는 내용 또는 자료가 몇 번이나 나왔으며 또는 그 내용이 차지하는 지면이나 시간 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기록한 뒤 이들을 집계해서 통계적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그 빈도 수, 또는 지면의 분량, 시간 량 등을 집계체계라고 한다(김영주, 2004; 차배근, 1990). 본 연구에서 집계 체계는 빈도 수 이다.

### 5. 분석절차

내용 분석에 있어 객관성과 체계성의 확보는 연구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기준과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객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김영주, 2004).

#### 1) 분석기준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분석 기준을 가지고 분석에 임했다. 먼저 전체 게시물 중요에서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게시물이 아닌 것은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피아노 레슨 광고, 동호회 운영에 관한 공지사항 등은 제외되었다.

둘째, 게시물을 각각의 유목에 포함시킬 때, 제목을 기준으로 유목을 구분하였다. 이는 한 게시물에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있어도 게시자가 가장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제목으로 표현하리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셋째, 답글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게시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영어학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들이 여러 개 게시되었을 경우나 답글이 없는 경우나 모두 하나의 게시물로 보았다.

#### 2) 분석의 신뢰도

분석 대상 게시물의 약 6%인 100편의 게시물을 무작위 표집하여 연구자 7인이 함께 분석한 후, 이들 분석자들 사이의 상호 일치를 보았다. 분석자들 간의 상호 일치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를 종합적 신뢰도 계수라고 한다. 종합적 신뢰도 계수 공식에 따라 신뢰도를 구한 결과 7인 간의 최종적인 일치도는 .89로 산출되었다.

### 6. 자료의 분석방법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얻어진 자료는 각 분석유목 및 하위 영역별로 해당하는 게시물 건수의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 12.0K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주제 유목별 분석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난 재미 한인 여성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게시물을 주제 유목별에 따라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2008년 2월 20일부터 2009년 2월 22일까지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게시물은 총 1745건이었다. 주제 유목별 분석에서 사회연계 유목이 총 838건(48.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 유목 339건(19.4%), 상담 유목 268건(15.4%), 보육 유목 190건(10.9%), 기타 83건(4.8%), 훈육 유목

1) 분석자들 사이의 상호 일치도를 상관 계수로 계산한 종합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김영주, 2004; 차배근, 1990). 산출식에서 N은 분석자의 수를 말한다.  
 종합적 신뢰도 계수 =  $N * (\text{분석자 상호간의 평균 일치도}) / 1 + ((N-1) * (\text{분석자 상호간의 평균 일치도}))$

&lt;표 1&gt; 주제 유목별 빈도

주제유목	계(%)
사회연계	838(48.0)
교육	339(19.4)
상담	268(15.4)
보육	190(10.9)
기타	83( 4.8)
훈육	27( 1.5)
총 계	1745(200.0)

27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 순서는 한국 여성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연구(김영주, 2004)의 연구에서 가장 게시물이 많은 유목이 교육, 상담, 보육, 사회연계, 훈육 순이었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 재미 한인 여성 집단의 경우 학령기 아동 양육에서 가장 비중 높은 영역이 사회 연계(48.0%)이다.

재미 한인 여성들의 경우 한인 여성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유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해서 일 것이다.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다는 것은 영어가 제 2 언어로서 생애 초기에 한국어를 배우고, 그 이후에 영어를 배웠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민 1세대나 1.5세대에 해당한다. 보통 이민 1세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19세 이후에 이민을 간 사람들(윤인진·임창규, 2008)로, 1.5세대는 12세를 기점으로 하여 12세 이전에 이민을 온 사람들로 본다(Kim, 2001). 따라서 1세대나 1.5세대의 경우 미국의 초등교육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질문 거리나 관심사가 생기며,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물로 작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으로서 미국 내 주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과 사회를 잇는 통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학교연계 외에도 방과 후 스포츠 클럽이나 북 클럽에 관한 내용이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사회 연계 유목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유목은 교육에 관한 유목(19.4%)이었다. 이는 재미 한인 1세의 교육 수준이 타 인종에 비해서 높고, 1.5세대나 2세의 교육 수준은 1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윤인진·임창규, 2008)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재미한인의 공통적인 이민 동기로는 경제적 기회와 자녀 교육(신혜섭, 1995)이라는 연구 결과도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유목은 상담 유목(15.4%)이었다. 상담 유목은 주로 학업관련문제,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 사춘기 변화 적응에 관한 내용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상대적으로 부모가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유아기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Grotevant & Cooper, 1985).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에 의한 일방적 훈육보다 부모와 자녀 간에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아동발달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주, 2004). 더욱이 집단주의적인 가치관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미국 사회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주 한인 가정에서 일방적인 부모의 권위를 내세운 훈육보다 상담이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 유목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유목은 보육 유목(10.9%)이었다. 보육 유목의 내용은 주로 식생활 관리, 건강 위생관리, 정서적 보호, 물리적 환경 제공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녀가 성장하여도 문화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수행되는 어머니의 한 역할임을 알 수 있다.

보육 유목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유목은 기타(4.8%)였다. 기타의 내용은 주로 비자나 신분문제, 한국 방문에 관한 내용이였다. 이는 재미 한인이 갖는 특수한 문제이다.

훈육 유목은 전체의 1.5%정도로 가장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 훈육 유목은 한국 여성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연구(김영주, 2004)에서도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 신문에 실린 아동 양육에 관한 기사내용을 분석한 연구(신양재·김영주, 1993)에서 1920-30년대에는 1940-50년대에 비해서 훈육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았다. 따라서 시대가 흐를수록 어머니의 아동 양육에 있어서 훈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이 결과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Duvall(1979)의 현대적 모성은 엄격한 훈육을 하기 보다는 융통성 있게 자녀의 발달을 격려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훈육이 부모가 담당하는 핵심적이고 주된 역할(문혁준, 2000)이라는 내용과 다르다.

## 2. 주제 유목의 하위 영역별 분석

### 1) 사회제도연계 유목

사회제도 연계 유목의 하위 영역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사회제도 연계 유목의 하위영역은 학교연계, 방과 후 교육연계, 대중매체 연계, 모국 연계로 구성되었다. 하위영역에서 학교연계가 7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방과 후 교육연계(19.8%), 대중매체연계(2.7%), 모국 연계(2.7%) 순이었다.

학교 연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선택/학교입학/전학(55.1%)이 가장 많았고 캠프/방학 프로그램(13.8%), 연계 모임(3.1%), 학교행사(2.4%), 이 중 언어(0.4%)순이었다. 재미 한인 여성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사회 연계는 소수 이민자 사회에서 미국 주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영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 1세대와 1.5세대의 경우 미국의 초등학교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를 미국의 초등학교

&lt;표 2&gt; 사회제도연계 유목의 하위 영역별 분포

주 제	하위영역		빈도(%)	계(%)*	
	영역	내용			
사회제도연계	학교 연계	학교선택/학교입학/전학	462(55.1)	627(74.8)	
		연계모임(학부모회)	26( 3.1)		
		학교행사	20( 2.4)		
		캠프/방학프로그램	116(13.8)		
		이중 언어	3( 0.4)		
	방화 후 교육 연계	학교관련	영 어	22( 2.6)	166(19.8)
			한글교육	6( 0.7)	
			미술교육	10( 1.2)	
			학과교육	72( 8.6)	
			복클럽	5( 0.5)	
학과외	학과외	악 기	17( 2.0)	166(19.8)	
		스포츠	20( 2.4)		
		체 스	4( 0.5)		
		영재교육	7( 0.8)		
		보이(걸)스카웃	3( 0.3)		
대중매체연계	사이트/통신/홈페이지	23( 2.7)	23( 2.7)		
모국 연계	모국 방문	15( 1.8)	22( 2.7)		
	한국 단기 어학연수	7( 0.8)			
합 계			838(100.0)		

\*전체 유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에 보내므로 학교 연계에 관한 하위 영역이 사회 연계 영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인다. 예를 들어 좋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군에 관한 문의를 하거나(학교 선택/학교 입학/전학), 여름방학이 비교적 긴 미국 학제에 따라 여름 방학 캠프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든가, 백인 부모들과의 학부모 모임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속풀이 하는 내용이 사회 연계 영역 중, 학교 연계 하위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학교의 수준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 선택과 학교 입학에 관한 내용은 재미 한인 여성의 사회 연계 영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과 후 교육 연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학과 교육을 보충하는 방과 후 교육(8.6%)이 가장 많았으며 영어(2.6%), 스포츠(2.4%), 악기(2.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수영, 태권도, 피아노 기본으로 하고 있었는데...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골프, 축구, 티볼, 테니스, 농구 등을 배우고 있고요. 체스도 본인이 배우고 싶어 해서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배우고, 방학동안 한글, 아트, 요리 등을 배웠는데...'라고 써어진 글이 있다. 대부분의 재미 한인 여성들은 아동의 이러한 방과 후 활동을 교양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대학 입시에서 학과 공부와 함께 스포츠, 악기, 자원봉사 활동, 클럽 활동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중매체 연계 영역과 모국 연계 영역이 비중은

작지만 사회 연계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대중 매체 연계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트/통신/홈페이지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의 학습을 위한 사이트를 찾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모국 연계는 2.7%로 나타났다. 모국 연계 영역의 경우 모국 방문과 한국어 습득을 위한 단기 연수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보통 6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한두 달 정도 방문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이용해서 한국어 연수를 도모하기도 한다. 김경근(2005)의 연구에 따르면 재미 한인 사회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주류 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이 민족의식을 유지하고 세대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해 한글학교에 보낸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재미 한인 여성들이 모국 연계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2) 교육 유목

교육 유목의 하위 영역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교육 유목의 하위영역으로는 신체영역, 정서/사회적 영역, 인지영역, 기타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에 인지영역이 9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별로 살펴보면 교재/교구/서적(28.3%)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숙제지도(24.2%), 학습지/과외(16.2%), 시험/대회(12.4%), 학과교육(4.7%), 기타 외국어 교육(2.7%), 영어와 한글교육(1.8%), 미술교육과 악기(2.7%)가 순이었다. 이 결과는 재미 한인들의 교육

<표 3> 교육 유목의 하위 영역별 분포

주 제	하위영역		계(%)*	
	영역	내용		
교 육	신체영역	체육/운동	2( 0.6)	314(92.6)
	정서/사회적영역	여행/견학	5( 1.5)	
		취미생활	3( 0.9)	
		소풍	1( 0.3)	
		봉사활동	9( 2.7)	
	인지영역	영어	6( 1.8)	
		한글교육	6( 1.8)	
		미술교육	1( 0.3)	
		학과교육	16( 4.7)	
		숙제지도	82(24.2)	
시험/대회		42(12.4)		
교재/교구/서적		96(28.3)		
학습지/과외(튜터)		55(16.2)		
기 타	상 장	4( 1.2)	5( 1.5)	
	학예회/발표회	1( 0.3)		
합 계			339(100.0)	

\*유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준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이는 부모세대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이선미, 2004) 자녀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투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미국사회에서 세대 간 신분 상승을 꾀하는 많은 수의 1세 부모로 인해 1.5세와 2세 자녀들의 교육 수준은 다른 인종 및 민족 집단에 비해 높다(윤인진, 임창규, 2008)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미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신분상승을 꾀하는 것은 가족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 가족에 있어 자녀의 교육은 자녀 자신과 부모의 공동적 관심사이며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는 과제가 되기(김경신 등, 1994)때문이라는 국내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강희경, 2003)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학업성취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한국 가족이나 재미 한인 가정에서 아동의 학업은 자녀 양육에 있어 심리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배가시키고, 갈등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인지영역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진 정서/사회적 영역이나 기타 영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정서/사회적 영역은 5.3%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봉사활동(2.7%)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여행/견학(1.5%), 취미생활(0.9%), 소풍(0.3%) 순이었다. 기타 영역은 1.5%로 나타났으며 상장(1.2%)이 학예회/발표회(0.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체영역에서 체육/운동은 0.6%로 나타났다.

인지 영역 외에 다른 정서/사회적 영역이나 신체 영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부모들은 그들의 목표가 아동의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최상의 발달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Zigler와 Cascione(1980)의 주장을 돌이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3) 상담 유목

상담 유목의 하위 영역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상담유목의 하위영역은 학업관련문제, 친구(짝꿍)관계, 부모-자녀관계, 사춘기변화적응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위영역에서 학업관련문제가 8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친구(짝꿍)관계(9.0%), 사춘기변화적응(0.4%), 부모-자녀관계(0.4%) 순이었다. 학업관련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58.6%)이 가장 많았고, 학업수준/학년선택(25.7%), 학습태도(4.9%), 진로/진학(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담 유목에 있어서 대략적인 경향은 한국 여성의 학령기 아동 양육(김영주, 2004)에 비해 지나치게 학업 관련 문제에 관한 상담의 비중이 높다.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 진로, 진학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높는데 비해 재미 한인의 경우 학교 생활 적응에 관한 내용이 많다. 이는 앞서 논의한 사회연계, 교육 유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미 한인 여성이나 학령기 아동, 더 나아가 이들을 포함하는 재미 한인 가족에 있어서 일관된 관심사는 미국 학교에의 적응임을 나타낸다.

&lt;표 4&gt; 상담 유목의 하위 영역별 분포

주 제	하위영역			계(%)*
	영역	내용	빈도(%)	
상 담	학업관련문제	학습태도	13( 4.9)	241( 89.9)
		학교생활적응(학교정보)	157(58.6)	
		진로/진학	2( 0.7)	
		학업수준/학년선택	69(25.7)	
	친구(짝궁)관계	친구(짝궁)관계	24( 9.0)	24( 9.0)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	1( 0.4)	1( 0.4)
	사춘기 변화적응	사춘기변화적응	2 (0.7)	2( 0.4)
합 계			268(100.0)	

\*유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 4) 보육 유목

보육 유목의 하위 영역별 분포는 <표 5>와 같다. 보육 유목의 하위영역으로는 식생활관리, 건강/위생관리, 정서적 보호, 물리적 환경 제공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위영역에서 물리적 환경 제공(73.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의 구체적 내용별로 살펴보면 문구/준비물/도시락 관련 게시물(23.2%)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환경(22.1%), 선물/생일(16.3%), 케어(7.4%), 생활용품구입(4.2%), 용돈(0.5%) 순이었다. 하위 영역 중에서 문구/준비물/도시락 관련 게시물에 관한 내용으로는 미국 학교에 보낼 때 도시락을 어떻게 싸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 집에서 한식을 주로 먹는 데, 한식으로 도시락을 싸 갈 때 냄새가 나서 다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내용이나 한식 도시락을 싸 갈 때 냄새가 나지 않는 메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국식의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싸 간다면 어떻게 조리하고 포장해야 하는지, 미국 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 메뉴가 영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와 같은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게시물 내용으로 다루어 졌다. 미국 학교에서 준비해 오라는 준비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는 내용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 파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 ‘아이싱’을 가져오라는 데 ‘아이싱’이 뭔지, 준비물 목록에 ‘folders - 3 ring duotang’이라고 되어 있는데 ‘duotang’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다. 교육 환경에 관한 내용도 주로 학군과 관련된 게시물이 많았고, 생일과 선물도 미국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선물로 뭐가 좋은지, 선물을 어떻게 포장해야 하는지, 아이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식 생일파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는 선행 연구(김영주, 2001, 2003, 2004)에서 보육 유목의 주된 내용이 영아용품이나 생활 용품 구매에 관한 것이었던 것과 다르다. 이는 재미 한인 여성이 학령기 아동을 보육하는데 미국 학교를 보내는데 필요한 도시락이나 준비물,

선물, 파티와 같은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을 나타낸다. 이는 재미 한인 어머니가 아동을 미국 초등학교에 보낼 때 자신이 자라면서 경험하지 못한 미국 학교의 문화에 아동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갖게 되는 독특한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 제공영역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진 영역은 건강/위생관리(22.6%)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방접종/진료/치료(18.5%)가 질환(4.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학령기 아동동 양육(김영주, 2004)과 다르게 예방접종/진료/치료와 질환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초기 이민 경험은 재미 한인 여성들의 건강과 질병 관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은옥, 1996). 이민과 건강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김현실, 2004). 재미 한인의 경우 자영업을 주로 하면서 의료 보험이 없고, 언어적인 문제로 의료에 관한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재미 한인의 60%가 한국인 의사를 선호하며, 31%가 한국인 약사에게 건강관리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노은하, 2000)에 비추어 볼 때 건강/위생관리에 관한 내용은 재미 한인 여성의 아동 양육에서 취약한 부분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초기 이민 적응기에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아동들의 소화기 계통 질병이 많고, 소아요실금도 자주 발견되는데 이것 역시 아동의 초기 이민 적응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는 연구(Kim, 2007)의 연구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서적 보호(2.1%)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축하/감동에 반응(1.6%)이 고민, 우울 다루기(0.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보호란 아동의 정서에 반응해 주고, 고민이나 우울을 달래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잘 표현하도록 돕고,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김영주(2004)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정서적 보호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과 그에 대한 해석으로 자녀에 대한 정서적 보호가 상담으로 전이되었다고 본 것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즉 자녀의 정서에 반응해주고 지지해주던 데서 벗어나



<표 5> 보육 유목의 하위 영역별 분포

주 제	하위영역			계(%)*
	영역	내용	빈도(%)	
보 육	식생활관리	식생활지도	3( 1.6)	3( 1.6)
	건강/위생관리	예방접종/진료/치료 질 환	35(18.4) 8( 4.2)	
	정서적 보호	축하/감동에 반응 고민, 우울 다루기	3( 1.6) 1( 0.5)	4( 2.1)
	물리적 환경 제공	생활용품구입	8( 4.2)	
		문구/준비물/도시락 용 돈	44(23.2) 1( 0.5)	
		선물/생일 케어(가정주부/라이드)	31(16.3) 14( 7.4)	
		교육환경	42(22.1)	
합 계			190(100.0)	

\*유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6> 기타 유목의 하위 영역별 분포

주 제	내용	빈도(%)*
기 타	비자(신분)관련	4( 4.8)
	정보 제공	79(95.2)
합 계		83(100.0)

\*유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녀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식생활관리 영역에서 식생활지도는 1.6%를 차지했다.

5) 기타 영역

기타영역의 하위 영역별 분포는 <표 6>과 같다. 기타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자(신분)관련, 정보제공이며, 정보제공이 95.2%로 가장 많았고, 비자(신분)관련이 4.8%를 차지하였다. 정보 제공이란 재미 한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아직 영어 사용이 편하지 않은 커뮤니티 회원을 위해 미국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생활관련 정보, 무료 미술 프로그램이나 영어 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여름 방학동안 한국 전통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자에 관한 문제는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데 엄마는 시민권이 없을 경우에 한국으로 출국하거나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혹은 비교적 단기간 미국에 거주한 경우 아이의 비자상태와 그에 따른 미국 내 공립학교 입학에 관한 질문이었다.

김영주(2004)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게시물 중 기타로 분류할만한 게시물이 없었다. 그러나 재미 한인 여성

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내용 분석에서는 교육, 상담, 훈육, 보육, 사회 연계 등과 같은 기존의 분류 유목에 속하지 않는 비자나 언어 문제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아동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기타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타 유목은 재미 한인 여성이 갖는 독특한 언어상의 문제, 신분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훈육 유목

훈육 유목의 하위 영역별 분포는 <표 7>과 같다. 훈육유목의 하위영역으로는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사회규범 내면화, 훈육 방법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위영역에서 훈육방법이 7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본생활습관형성과 사회규범내면화 영역은 각각 11.1%이었다. 훈육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양육방식(74.1%)이 양육태도(3.7%)보다 많이 나타났다.

훈육 방법에 관한 내용은 양육 방식에 관한 내용이 74.1%로 가장 많았고 양육 태도에 관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양육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발표를 잘 하지 못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한인 가정에서는 ‘한국 아이들이 유독 발표력이 없고, 토론할 때 자기의견을 말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양육방식에 문제가 있어서래요. 미국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가족 간에도 서로 토론하는 분위기인데, 그에 비해 우리는 애들이 자기의견 말하려고 하면 어린애가 뭘 알아 가서 공부나 하라고 하든지 말대꾸를 한다고 혼내는데 이런 양육 방식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발표력이 없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라고 쓴 게시물이 있었다. 즉 모국의 가치관에 의해 양육했을 때, 그것이 미국 사회의 가치관에 맞지 않음을 토로하고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많았다.

&lt;표 7&gt; 훈육 유목의 하위 영역별 분포

주 제	하위영역		계(%)*	
	영 역	내 용		
훈 육	기본생활습관형성	일상적 생활습관	3(11.1)	3( 11.1)
	사회규범내면화	일상 생활	3(11.1)	
	훈육방법	양육방식(행동) 양육태도(이념)	20(77.8) 1( 3.7)	21( 77.8)
합 계			27(100.0)	

\*유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관한 내용은 주로 일상적 생활 습관에 관한 것이었고, 사회 규범의 내면화는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김영주의 한국 어머니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연구(2004)에서 일상생활을 통한 사회 규범의 내면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은 연구결과이다. 이를 통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관한 훈육은 재미 한인 가정에서나 한국 가정에서나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영주의 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2003)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훈육이 학령기 아동 양육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일상생활과 관련된 훈육은 학령기로 진입하기 전에 완료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재미 한인 여성들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난 1745건의 게시물을 내용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학령기 아동을 둔 재미 한인 여성의 아동 양육은 사회연계, 교육, 상담, 보육, 기타, 훈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재미 한인 여성들은 아동을 미국 사회에 연계해 주는데 가장 관심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민자들은 기존의 문화권으로부터 새로운 문화권에 이입하여 적응해야만 하는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문화이입이란 새로운 문화 체제에 노출되어 지배적 문화 집단의 방향으로 이민자들의 태도나 행위가 변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Rogler, 1982). 따라서 재미 한인 여성들이 아동의 사회 연계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민자로서 적응을 위한 당연한 행위이다. 그러나 소수 민족의 적응에 관한 몇몇 연구들(Bonacich & Modell, 1980; Frasier, 1957; Light, 1972; Sowell, 1975)은 민족 문화와 전통이 거주국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하는데 주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최협(2003) 또한 민족적 정체감의 확립이나 문화적 영속성, 정체성 유지가 재미

한인들에게 중요한 적응기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아, 미국 사회에 적응하되, 민족적 정체감이나 문화적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연계 유목의 하위 영역 중 모국 연계가 일부분 나타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아동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단기 한국 연수나 한국 방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미 한인 여성이 일부분 존재했고, 이들을 위하여 국내 초등학교에 재미 한인 2세의 모국 방문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재미 한인 여성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서의 두 번째 관심사는 교육이었다. 안황란(2007)의 연구에서도 자녀 교육은 미국 이민 한인 여성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였다. 이민의 목적 중 하나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일 정도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은 있지만 미국의 제도 교육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재미 한인 여성의 아동 교육에서의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 유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육, 훈육, 상담 유목에서도 고루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육 유목에서 아동에게 도시락을 싸 줄 때, 다른 미국 아동은 도시락으로 어떤 메뉴를 어떻게 싸오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다른 아이들에게 냄새로 인해 놀림 받지 않도록 도시락을 싸 주는 게 중요한 목표 하나였다. 또한 훈육 유목에서는 미국 학교에서 발표도 잘 하고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기 주장이 뚜렷한데 한국적 사고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이러한 훈육 유목에서의 문제 또한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서 야기되는 관심사였다. 교육 유목에서 재미 한인 여성이 문제를 느낄 때, 이러한 문제점은 아동과 가정으로 전이되어 재미 한인 가정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이민 정책과 미국 내 소수 이민자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계 부모들을 위하여 한국어로 된 학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안내 등이 필요하다. 渡美 전 한국에서도 미국 학교 제도와 정책, 방향, 바람직한 부모 역할, 자원봉사 영어 통역자의 이용 정보(안황란, 2007)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재미 한인이 미국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가정을 유지하며, 그 가정 안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화에 따라 이민이 증가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 재미 한인 여성의 학령기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재미 한인 차세대가 모국에 대한 유대감과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사회에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와 함께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터넷 게시판의 게시물을 각각의 유목에 포함시킬 때, 제목을 기준으로 유목을 구분하였기에 실제 게시자가 생각한 것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사이에서 오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제목 뿐 아니라 게시물의 내용까지 살펴보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1년 동안의 광고, 채용광고 등을 제외한 1700여 게시물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된 자료를 통하여 재미 한인 여성들의 양육방식을 결정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올라온 게시물과 더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분석해야 하며 이 연구에서 제외된 광고를 또 다시 분류하여 더 다양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난 게시물을 내용분석하는 외에도 다른 질적인 자료로 재미 한인 여성의 아동 양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희경(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8.
- 김경근(2005). 미주 한인의 민족교육관 연구. **비교교육연구**, 15, 29-56.
- 김경신 · 김명자 · 박혜인 · 유영주 · 유은희 · 윤종희 · 이미숙 (1994). 한국 가족의 교육열과 대학입시: 가족적 대책 수립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61-178.
- 김영주(2001). PC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임신 · 출산 및 영아 양육에 관한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9), 1-14.
- 김영주(2003) PC 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유아 양육에 관한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2), 187-198.
- 김영주(2004). PC 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학령기 아동 양육에 관한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8), 1-13.
- 김현실(2004). 이민과 건강-캐나다 이민 인구를 중심으로- 캐나다 논총, 10, 219-240.
- 노은하(2000). 뉴욕 거주 한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1), 61-67.
- 류지영(2005). 재미한인 영재 청소년의 민족적 정체감 형성. **한국청소년학회지**, 12(1), 348-370.
- 문혁준(2000). 부모 훈육방법의 세대간 전이. **대한가정학회지**, 38(5), 107-119.
- 백종화 · 박성연(2002).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터넷 이용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35-145.
- 신양재 · 김영주(1992). 한국 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 내용분석 (1) -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동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 . **대한가정학회지**, 30(4), 249-260.
- 신양재 · 김영주(1993). 한국 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 내용분석(II):1920년대부터 1970년대의 동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2), 159-175.
- 신혜섭(1995). 재미 한인 가족의 적응과 생활. **가족학논집**, 7, 355-366.
- 외교통상부(2008). **재외동포 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 안향관(2007). 미국 이민 한국 여성의 문화이입적 스트레스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6(2), 160-173.
- 유안진(1992). **아동양육**. 서울: 문음사.
- 윤인진(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동포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윤인진 · 임창규(2008). 재미한인 차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세대별 및 민족집단별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26(3), 409-436.
- 이선미(2004). 재미 한인 여성의 가정생활복지 실태. **동북아논총**, 155.
- 임은옥(1996). 재미 한인들의 초기 이민 경험과 질병관리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0(1), 58-79.
- 차배근(1990). **사회과학 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 최협(2003). 재미 한인 사회의 인권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3(1), 37-70.
- Berelson, B.(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Y.: The Free Press.
- Bonacich, E. & Modell, J(1980). *The economics basis of ethnic solidarity: Small business in the Japanese American Commun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rroll, M. J., Rosson, M. B., Isenhour P. L., Van Metre, C., Schafer, W. A. & Ganoie, C. H.(2001). MOOSburg: Multi-User Domain Support for a Community Network. *Internet Research*, 11(1), 65-73.
- Duvall, E. A.(1979).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Y.: J. B. Lippincott Company.
- Fernback & Tompson(1995). *Virtual communities*.

- <http://www.well.com/user/hlr/texts/VCCivil.html>
- Fragier, F.(1957). *Black bourgeoisie*. N.Y.: Free Press.
- Goodnow J.(1982). *Everyday ideas about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gnition*. J. P. Forgas, London: Academic press Inc.
- Grotevant H. D. & Cooper, C. R.(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Hsia, J.(1988). *Asian American in higher education and at work*.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Kim, D. Y.(2001). Immigrant entrepreneurship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among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 in N.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sis, City University of N.Y..
- Kim, P. S. & Lewis, G.(1994). Asian Americans in public service: Success, diversity, and discrimin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 58-79.
- Kim, Y. J.(2007). Content analysis of web data about health problems for Korean immigrant women in the USA. Paper presented at the 2007 3rd International Congress of Qualitative Inquiry.
- Lee, S. J.(1996). *Unraveling the 'model minority' stereotype*. NY: Teachers College Press.
- Light, I.(1972). *Ethnic enterprise in America: Business and welfare among Chinese, Japanese, and Black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cGillicuddy-De Lisi, A. V. & Subramanian, S.(1994). Tanzanian and united states mothers' beliefs about parents' and teachers' roles in children's knowledge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7(2), 209-237.
- Rogler, L.(1982).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mental health clinical service research on Hispanic population. *Hispanic Research Bulletin*, 4(4), 5.
- Siegel, I. E.(1985). A conception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egel.(Ed.). *Parental belief systems*(345-371). Hillsdale, NJ: Erlbaum.
- Sowell, T.(1975). *Race economics*. N.Y.: David McKay Co., Inc.
- Zigler, E. F. & Cascione, R.(1980). On being a parent. In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Parenthood in a changing society*, Urbana, Ill: ERI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U. of Illinois.

접수일 : 2009년 07월 15일

심사일 : 2009년 07월 28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8월 17일